

“친손주들이 딸만 둘이라 아쉽다.”

어릴 적 친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는 그 말이 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의 말이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린 나에게도 분명히 전해졌다. 사촌오빠는 '집안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고, 나는 같은 손주이면서도 어딘가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여자라서 조금 부족한 존재인 걸까. ‘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질문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직접 차별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도 충분히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양성평등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누구를 더 좋아하지 않고, 누구를 덜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양성평등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해 ROTC에 지원하면서부터였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자가 훈련을 버틸 수 있겠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

나 역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과연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혹시 '여자라서 힘들어한다'는 시선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는 상관없이 훈련은 모두에게 똑같이 시작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운동장을 30바퀴 뛰던 날이었다.

처음 몇 바퀴는 웃으며 뛰던 동기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들었다. 거친 숨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누구는 옆구리를 붙잡았고, 누구는 이를 악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남학생도, 여학생도 모두 한계와 싸우고 있었다. 30바퀴를 모두 마쳤을 때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지쳐 있었다.

그때 교관께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옆을 봐라. 그저, 나라를 지키는 같은 군인이고, 같은 동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전우이다.”

이어 교관님은 옆에 있는 동기를 꼭 안아 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모두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하지만 서로를 끌어안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땀에 흠뻑 젖은 군복, 거칠게 몰아쉬는 숨,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 낸 서로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순간에는 남학생도, 여학생도 없었다.

단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온 동기들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서로를 붙잡아 준 전우들이 있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양성평등은 남녀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별만으로 누군가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친 동기를 끝까지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어떤 장점도 성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릴 적 나는 '남자라면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ROTC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책임감, 노력,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 이후 나는 일상에서도 성평등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발표나 자료 조사를 성별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나누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가사와 돌봄을 분담한다. 누군가에게 “여자니까“, “남자니까“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끔 어린 시절 친할머니의 말이 떠오른다. 예전에는 그 말이 상처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했고, 편견을 넘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운동장 30바퀴를 달린 그날, 교관님의 한마디와 전우를 끌어안았던 짧은 순간은 내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었다. 양성평등은 특별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손을 내미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온몸으로 이해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성별로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지를 먼저 본다. 그것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넘어 내가 직접 배우고 실천하게 된,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이기 때문이다.